

## 司書養成에 관한 小考

—특히 專門職意識에 대하여—

金 世 翊  
梨大 圖書館學科教授

## 1. 도서관과 사서

도서관학 개론이란 책을 보면 대개가 도서관의 3대 요소라 하여 건물, 책, 사람 즉 시설과 도서관자료 그리고 도서관 직원이라고 쓰여져 있다. 이 3대 요소 외에 고객 다시 말해서 도서관 이용자를 첨부해서 4대 요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3대요소건 4대요소건 그 하나 하나의 요소가 다 도서관을 형성하는 절대적인 조건임에 틀림없으나 그 중에서도 도서관직원,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미국의 어느 학자의 말을 인용 하면 건물이 차지 하는 비중이 10% 자료의 비중은 20% 그리고 사서의 그것은 70%라고 한다. 이와 같은 수자 적표현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남음이 안가는 점도 있으나 사서의 비중을 그토록 높게 평가 설정한 것은 온당한 견해라고 보아 무방하다. 이 사람의 판단에 따르면 도서관의 운명은 거의 전부가(70%)가 사서의 자질과 능력에 달려 있는 셈이다. 사실 도서관에서 사서의 중요성을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때 훈련받은 사서가 없이 운영되는 도서관은 아무리 건물이 크고 책이 많아도 책의 창고이거나 대본(貸本)집일수는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도서관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도서관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서를 양성 배출해 내는 교육기관과 그외의 기관은 실로 그 책임이 중차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사서양성기관들은 과거 20년 가까운 세월이 걸쳐 그 나름대로의 노력과 최선을 다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허다한 허점과 문제가 산적해 있는 줄로 안다. 한국의 도서관을 선진의 직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관념적으로 이것을 방해하는 이른바 저해요소가 무엇인가를 구명하고 제도적인 면에서 과감히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문제의 하나라고 믿는다.

## 2. 사서와 전문직

도서관 조직의 기본형식중에 총무적 편성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도서관 업무 중에서 스텝부문을 구성하는 요소를 추출하여 그 업무를 분리 분화하는 형태를 말하며 이것을 도서관업무의 오차적 분화현상이라고 부른다. 도서관의 규모가 커질 때 인사 경리 서무 등이 이 부문에 속한다. 이런 형태의 결점으로 관리적 통일성 유지가 분해되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규모가 크고 인원이 많고 업무량이 많을 때에는 불가피한 일이다. 이런 경우에 이 부문에 종사하는 직원은 이른바 비전문직이며 이와 같은 비전문직 즉 일반행정직이 맡아 할 수 있는 사무의 량도 상당히 많다.

이에 대하여 수서 정리 봉사 부문의 도서관의 본질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직이 있는데 한국의 도서관은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개념의 설정, 업무한계의 애매성, 도서관 행정적 영향력의 편중 등의 미묘한 관계가 석연치 않은 상태로 계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의 간접적인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도서관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정사서 준사서 등의 자격규정이 있고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사서의 전문성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100%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법이나 자격증이 없는 미국같은 나라의 사서가 오히려 전문직의 객관성이 확립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서의 경우는 법률적 보장보다 사회적 인식이 더 중요한 것 같다. 한국의 경우는 자격증이 수여되고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면서도 사서의 전문성의 농도는 대단히 희박한 것이 사실이며 사회적통념으로는 사서의 전문성이 인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몇해 전에 사서적무수당 때문에 문교부나 경제기획원에 대하여 여러차례 진정하고 교섭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당무자들은 사서적이 직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역정을 냈다. 일반공무원도 다

대학에서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공무원이 되었을때 사서가 무슨 특별한 공부나 연구를 했기에 그러느냐고 반문했을 때 아무도 그들을 납득시킬만한 답변을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대체 우리가 사서직을 전문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어디에 있는 것일까? 막연하게 우리는 전문직이라고 내세워도 객관적인 신빙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어떤 직업이 전문직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그가 받은 교육과 밀접하게 관계 되고 있다.

현대의 사서양성 교육을 위한 도서관학은 대체로 3가지의 입장이 있는 듯하다.

첫째는 엘리트 듀이를 원조로 하는 교육적 기능을 도서관의 주류로 삼고 있는 입장이다.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을 사회제도에 순응시켜서 그 유지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사회의 발전을 도모 하게 하는 것이라면 도서관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문화재 주로 문헌을 이용하여 모든 사회 현상을 파악하게 하고 스스로를 교육시키고 발전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러한 것은 특히 모든 도서관의 기본적 형태인 공공도서관의 경우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공공도서관이란 사회교육기관이라는 지금 생각하면 소박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지만 이것은 듀이 이후 면면히 이어온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미지의 결정이다.

그러나 이런 의미의 사회교육기관이라면 굳이 도서관만의 특징은 아니다. 도서관 외에도 사회교육기관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교육적 기능으로서의 도서관의 입장을 주장하는 한 사서가 전문직이 되기는 어렵다. 전문직을 주장할 근거가 희박해진다.

두번째의 입장은 도서관의 기술기능이다.

도서관의 조직론에서 말하는 수서 정리 대출 참고봉사의 4가지 기본적 기능으로 도서관업무를 분할해서 생각할 때 그 업무수행과정은 분명히 기술적이다. 의사나 치과의사 변호사 그리고 설계사와 같은 기술적인 작업에 틀림없다. 즉 테크노로지로서의 도서관업무를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전문직적 성격의 표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뚜렷한 전문성이 부각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가령 그중에 가장 기술적인(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정리기능 즉 분류나 목록편성에 있어서도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하여 대학 도서관학과 4년을 공부해야 하느냐는 반성이 따른다. 얼마나 정확하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를 잠시 따지지 않고 다만 분류와 목록을 한다는 작업에 있어서 도서관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고등학교

교를 확실하게 졸업한 사람이 4년동안 그것만을 한다면 그는 과연 도서관학과 졸업생 보다 못한다고 판정을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사실 이러한 기술적인 처리방법은 듀이 이후 많이 개선 되고 발전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볼 때 의학이나 그 외의 학문분야의 발전에 비하여 그 템포가 몹시 느리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근본적으로 혁신되고 발전된 것은 도서관 한 분야에 있어서 별로 없어 보인다. 2차대전 이후에 도서관의 기계화 문제 도서관학의 교과과정에 도입된 도큐멘테이션 같은 것도 따지고 보면 그것은 도서관 고유의 것이라기 보다는 타분야의 것을 도입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도서관학을 정립시킬 것인가. 기술 분야에 있어서 도서관 만이 가지는 전문적인 요소를 확립 확장시키는 문제가 늘 남는다. 엘리트듀이가 1887년 처음으로 콜롬비아대학에 도서관학교를 설립할 때 많은 도서관인들은 사서는 도서관 현장에서 경험에 의한 기술습득이 더 바람직한 것이며 대학과정에서 양성 할 것이 아니라고 반대한 사실은 사서와 전문성을 운운케하는 현제에 있어서도 나을법한 일이다. 우리는 그러한 도제제도(徒弟制度)를 찬성할 수는 없으나 학교 교육이 도제제도보다 실질적으로 월등하다는 실증을 보여주지 않는한 이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의 어려운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도서관학 교육이 이런 점에서 깊이 반성하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줄로 안다.

도서관학을 생각하는 세번째의 입장은 커뮤니케이션 매디아로서의 도서관업무이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에 따라 문화전달 정보전달의 매디아로서 도서관을 논하는 경우에 테크노로지로서의 기본관점에는 의문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도서관학 전체를 가바한다는 것은 너무도 비 인간적이고 인간의 역실성이나 심화성을 도외시하는 기계적 발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도서관업무가 단순한 기계적인 작업과정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문화의 상징이나 교육센터니 하는 막연한 개념으로 생각하기도 주저하지 않을 수 없는때에 문제가 있다. 다시 사서직의 전문성을 생각할 때 사서직은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전문직을 지향하고 있는 과정에 처해있는 직업이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온당한 일이라고 믿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장래에는 자연적으로 사서직이 의사나 변호사 처럼 전문직종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미신이다. 현재와 같은 제도 현재와 같은 양성기관의 실패 현재와 같은 도서관현황이 계속되는 한 전문직이 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어찌보면 우리 스스로가 전문직을 거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도매체 다른 전문직에 준 의사나 준 변호사 같은 것이 있는가. 그 뿐만 아니라 강습을 받아서 정사서나 준사서의 국가적 자격증을 주는 직종이 따로 있는가. 이것은 무슨 사서직을 폐쇄적으로 좁힌다거나 특선적이거나 배타적인 뜻에서가 아니라 사서직의 자격증을 받기가 그렇게 쉬워서야 어떻게 전문직이 될 수 있겠는가하는 의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나라 도서관법의 미비와 치졸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1963년에 겨우 통과되었을 때 통과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대견스러웠지만 지금은 저해현상 까지도 나타내고 있다.

도서관법은 근본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 누가 그 개정의 주동이 되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말할 것도 없이 도서관계에 정통한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도서관협회내에 설치되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어느 특별한 기관에 맡겨서는 않된다. 그렇게 되면 그 기관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도서관협회가 해야 할 일 중에 이 문제가 으뜸가는 일이라고 믿는다. 시급히 도서관법개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그 초안을 작성하여 문교부나 국회와 접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도서관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인사문제 예산 문제 행정체계 등을 정비하지 않고 이 상태로 가면 아무리 세월이 가도 주관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사서의 전문성이 인정되기는 불가능하다.

도서관법을 개정보완하여 제도적 모순과 허점을 정비하고 사서양성교육기관 그것이 학교이건 아니건 내용적인 충실을 기함과 동시에 한국의 사서의 바람직한 상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도서관법의 어디가 나쁘냐고 반문한다면 법의 구성 용어사용 내용 등에 대하여 거의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언급할 지면이 없고 만 기회에 필자의 소신을 밝히겠다. 사실상 도서관법의 허점 때문에 한국의 도서관계에는 도서관적이 아닌 요소가 너무 많고 또 그 요소들이 도서관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 3. 바람직한 도서관 전문직의 본질

우리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도서관법의 규정예 따라 정사서 준사서 또는 사서교사의 자격증을 소지하면 전문직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에는 많은 의심이 따른다.

일반적으로 전문직으로서 요구되는 것은 그 전문직이 형성 성립되기 위한 기본적학문의 습득과 그것을 실지로 운용하는 기술이며 여기에다 인간적인 측면이 가미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격증이 곧 전문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격증이라는 것은 전문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는 하나의 인정서이며 전문직이란 그후의 연구와 노력과 숙달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실이어야 한다. 영국 같은 나라에서 오랫동안 대학 졸업자에게도 자격증을 주지 않고 도서관협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ALA나 FLA를 주는 것도 이런데 그 원인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도서관 사서가 현장에 나가서 더욱 그 힘을 연마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의사나 변호사는 자기의 지식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낼 수가 있지만 사서의 경우는 도서관에 있는 모든 자료와 시설을 하나의 수단적 도구로서 이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많은 자료에 익숙해야 하며 시설활용의 기술을 습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서의 부담이 커서 변호사가 육법전서나 판례집을 보고 의사가 의서를 보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사서는 도서관 실무에 종사함으로써 새로운 직업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전문직이라고 부른다. 학교에서는 다만 그와 같은 일을 해 낼 수 있는 기초적 지식을 줄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기초적 지식의 실태가 무엇이나 하는데에 엄청난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 도서관학 교육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고 이 문제는 미국 같은 도서관 왕국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채로 모색 과정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한국의 도서관에는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런 점에 보면 사서직은 아직도 이 나라에서는 새로운 분야라고 해야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의욕이며 개척정신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일생 책과 더불어 살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는 도서관을 모르는 사람의 말이다. 진정한 사서라면 도서관에서 자기를 위한 독서 같은 것을 할 사이가 있을 수 없다. 도서관도 이제부터는 그 양상이 달라져서 사서도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담당하는 스페셜리스트와 기계에 예속되다 시피 되어 일하는 사서로 분화 될 것이다.

사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는 되도록 고도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며 도서관현장에 종사하면서도 안이한 세리리멘의 태도를 버리고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실 한국에서는 도서관학의 이론적인면이나 현장기술면에 있어서 과거 20년사이 별다른 근본적인 발전이 없었다. 새로운 유능한 일꾼의 배출이 기대된다.